

TV 2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list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유럽·남미도 K-POP 열풍 뜨겁습니다”

비스트, 내년 첫 월드 투어 계획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비스트가 된 것 같아 자랑스럽습니다. (비스트 양요섭)
지난 5일 영국 런던, 14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합동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큐브엔터테인먼트(이하 큐브) 소속 가수들의 얼굴에는 ‘해냈다’는 성취감이 가득했다.
비스트·포미닛·지나 등 큐브 가수들은 26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터넷 동영상으로만 보던 해외 팬들을 직접 만날 수 있어 무척 행복했다”고 입을 모았다.
“영국과 브라질에도 저희 팬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직접 보니 정말 열광적이시더라고요. 현지 한국분들도 만났는데 그분들도 ‘놀랍다’고 하시더군요. (포미닛 허가운)
비스트 용두준은 “런던 공연(오뚜 브릭스런 아카데미) 때는 폭죽 사용에도 제한을 받았고 팔출 무대도 설치할 수 없어 여러모로 열악한 상황에서 공연을 했는데도 많은 관객이 춤과 노래를 따라해 눈물이 날 뻔했다”고 소개했다.
한국 공연 때와 가장 달랐던 점은 무엇이었을까.
“신호하는 리듬이나 박자가 다른 것 같아요. 한국에서 활동할 때는 ‘블랙 앤 화이트’라는 곡이 가장 인기가 많았는데 브라질에서는 ‘슈퍼솔로’ ‘바나나’ 같은 곡을 더 많이 알고 또 좋아하더라고요. (지나)”



큐브 가수들은 K팝 가수 중 처음으로 영국에서 유료 공연을 열었고, 남미 공연 시장도 뚫었다.
“브라질에서 공연할 때 보니 핀란드랑 프랑스 파리에서 오신 관객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감동해서 나중에 프랑스랑 핀란드에도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포미닛 전지윤)
비스트는 내년에 첫 월드 투어도 계획하고 있다. 용두준은 “관객이 많이 오고, 표가 잘 팔리는 것보다는 만족할만한 공연을 하고 돌아오는 게 목표”라면서 “K팝을 더 많이 알리고 와야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큐브의 흥성 대표는 “브라질에 갈 때 ‘ 과연 K팝이 브라질까지 갈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막상 가보니 여기저기서 한국 음악이 나오더라”면서 “디자이너 등 창작을 하는 사람들은 K팝을 들으며 영감을 얻는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소녀시대, ‘올해를 빛낸 10대가수’ 3년 연속 1위

걸그룹 소녀시대가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갤럽이 26일 발표한 ‘올해를 빛낸 10대가수’에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갤럽은 전국 만 13~59세 남녀 3401명을 대상으로 ‘올 한해 가장 뛰어난 활약을 한 가수’를 묻는 결과 소녀시대가 26.1%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올해 히트곡 ‘더 보이즈(The Boys)’로 큰 사랑을 받은 소녀시대는 ‘연방별 가수 선호도’에서도 10대부터 50대까지 전 연령대 1위에 오르며 폭넓은 사랑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녀시대에 이어 빅뱅, 장유정, 김범수, 아이유, 임재범, 2PM, 박정현, 티아라, 원

더걸스가 10대 가수에 차례로 꼽혔다.
또 ‘올해 최고의 인기 가요’로는 아이유의 ‘좋은 날’이 뽑혔다.
갤럽은 올해 발표된 노래 중 ‘가장 좋아하는 가요’에 대한 응답 결과 ‘좋은 날’이 1위, 티아라의 ‘플리 플리’가 2위, 소녀시대의 ‘더 보이즈’가 3위, 씨엔블루의 ‘직감’이 4위, 씨스타의 ‘소 울(So Cool)’이 5위에 올랐다고 전했다.
‘올해 최고의 신인 가수’로는 남성그룹 인피니트와 여성그룹 달샤벳이 선정됐다.
/연합뉴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27일(음 12월 3일 丙辰)

36년생 말이 아니면 하지 말고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48년생 어려움은 없으나 지주하다. 60년생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면의 변수가 크고 넓다. 72년생 평안하며 만사어의하리라. 84년생 세밀히 살펴보면 진면모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리라. 행운의 숫자 : 22, 43
37년생 협조에 대해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49년생 오랫동안 지속하다 보면 큰 가치가 잡힐 것이다. 61년생 서로 이해하면 모두가 득이다. 73년생 치열하고 집요한 자 승자가 될 수 있리라. 85년생 오늘은 별일 없으나 걱정하지 말고 지내라. 행운의 숫자 : 89, 71
38년생 주된 것에 충실하다 보면 나머지는 모두 자연스럽게 해결되리라. 50년생 간단하게 볼 일 아니다. 62년생 이전투구는 서로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것이다. 74년생 분위기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32, 13
39년생 애매우머 기다리던 보람이 있다. 51년생 강한 경쟁 상대를 만났으니 내부 결속부터 다져라. 63년생 잠잠한 밑고 방침하다가는 크게 실망할 수 있다. 75년생 과거를 털어버리고 새로운 일을 꾀하라. 행운의 숫자 : 98, 32
40년생 중요한 일에 주력하면 해답이 나올 것이다. 52년생 지난 문서는 버리고 새로운 문서를 읽는다. 64년생 뜻이 없으면 아예 시작할 필요 없다. 76년생 큰 계획으로 임해야 더욱 값진 수확을 얻으리라. 행운의 숫자 : 05, 33
41년생 급격히 빨리 서두를수록 풍성한 성과를 거둘 수 있리라. 53년생 희망적이고 앞선 진행이 계속 된다. 65년생 초조하고 불안해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 아니다. 77년생 친구로부터 좋은 소식을 듣는다. 행운의 숫자 : 32, 67

42년생 승수는 방법부터 적용해 보자. 54년생 과인 친절을 보이며 서두르는 자 중에서 사기꾼이 있다. 66년생 기본적인 것은 변동시키지 말고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78년생 내일을 위해서 살아 버려라. 행운의 숫자 : 56, 02
43년생 상대가 없는 자리라고 해서 참무로 말하면 안 되느니라. 55년생 고행이 우려된다. 67년생 일을 추진하면 여러 가지가 아울러 해결되겠다. 79년생 변화가 생기더라도 심신의 안정을 취하라. 행운의 숫자 : 50, 34
44년생 꼭 필요한 것은 취해야 하느니라. 56년생 타인의 증상모과 기만을 만날 우려가 많으니 매우 조심해야겠다. 68년생 말해 봤자 아무 소용이 없겠다. 80년생 여러 가지로 긴장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77, 40
45년생 어긋날 수도 있으니 대비해야 한다. 57년생 거리를 둔 채에 주시할 필요가 있다. 69년생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한 나머지 정당한 일을 처리하지 못하면 안 된다. 81년생 배우자의 건강을 체크해 보라. 행운의 숫자 : 12, 97
46년생 사실을 참작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면 된다. 58년생 인간관계로 인한 시달림이 보인다. 70년생 본의 아닌 공감 표시도 불가피 하겠다. 82년생 재산은 증식되나 배우자의 이애가 부족하니 대화하라. 행운의 숫자 : 33, 23
47년생 안 될 일이 이루어질 수는 없느니라. 59년생 불리하니 차분하게 대가하라. 71년생 다투어 실의이 없는 것은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는 것도 상책이다. 83년생 가까운 사람과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라. 행운의 숫자 : 42, 36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

제20회 光日盃 광주·전남 직경비록대회 결승국 5보(94~127)
흑 김광식 5단 (주)송림, 백 조영배 5단 (주택관리사회)
Includes a large Go board diagram with numbered stones.

상변을 키운 일격
▲의 두점머리가 백의 운신을 제한하는 통렬한 일격이다. 이 한방으로 백의 위기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조영배 5단은 어쩔 수 없이 백 94로 물러섰는데 흑 95가 놓이고 보니 백 대마가 위험한 것은 차치하고 상변 흑 집이 눈덩이처럼 불풀어 오르고 있어 백의 고룡이 가중되고 있다.
백 96 때 흑 97로는 ‘참고도1’의 흑 1로 전혀 반발하고 3에 두었으면 백 대마가 위험했으나 김광식 5단은 배가 부른 나머지 여유를 보인 것으로 보인다.
흑 103까지 상변 흑 집을 크게 확정하고 111로 우하귀에 가일수 한 것은 일종의 몸조심이다. 이곳은 백이 ‘참고도2’의 백 1로 치중해 오더라도 흑 2가 좋은 수로 10까지 살아있는 곳이다.
/오규철 9단 <본보 바둑해설위원>

Table with 4 columns: 1. 12월 27일(음 12월 3일 丙辰) - 2. That was very well said / 좋은 말씀입니다 - 3. 柔能制剛(유능제강) / 부드러운 유, 능할 능, 절제할 제, 굳셀 강 - 4. 吃着碗里瞧着锅里 / 욕심은 끝이 없다 - 5. 私もニュースを聞いて、びっくりしました / 나도 뉴스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